

# 현안과 과제

- 한·중 정상회담 의미와 과제
  - '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' 강화 기대된다!



## 1. 방중 일정과 의미

- 오는 6월 27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으로 ‘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’에 있는 양국 간 관계가 더욱 공고해 질 전망이다
  - **주요 일정** :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6월 27~30일까지 3박 4일 동안 중국을 국민 자격으로 방문, 6월 27일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(習近平) 국가주석과 정상회담한 후 국민만찬에 참석할 예정, 이후 28일에는 리커창(李克強) 총리와 장더장(張德江) 전인대 상무위원장 등 올 3월 새로 취임한 중국 새 지도부 인사들과의 연쇄 회동
  - **주요 의제** : 이번 방중 기간에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한 양국 간 협력 방안 및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‘중국의 역할론’에 대한 논의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중 FTA 등 경제·산업 분야와 사회·문화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친 포괄적인 협력 증진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
  - **의미** : 올해는 한중 수교 21주년을 맞는 해로 양국 모두 신지도부가 탄생하는 등 상호 ‘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’가 실질적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
    -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국민 자격 방문은 과거 정부의 미국→일본→중국 차례의 순방 관례를 깬 것으로 한중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
    -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한 정치·군사·외교 문제 뿐 아니라 경제·산업 분야와 날로 관계가 심화되는 양국 간 사회·문화 교류에서도 주요 전기가 될 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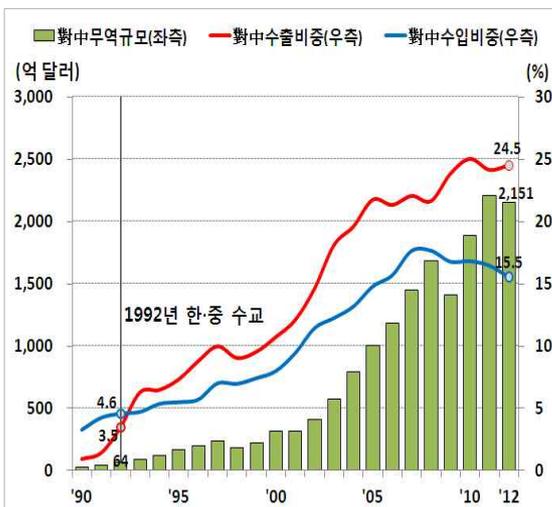
### < 역대 대통령 방중 시 주요 의제와 성과 >

| 구분      | 양국 관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요 의제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김대중 대통령 | ‘선린우호 관계’→<br>‘협력 동반자관계’           | - 산업, 과학기술, 환경 등 분야에서 협력 합의<br>- 중국의 WTO 조기 가입 지지<br>- 4자회담 추진 의견 조율 |
| 노무현 대통령 | ‘협력 동반자관계’→<br>‘전면적인 협력 동반자관계’     | - 차세대 IT, 서부 대개발 등 10대 협력사업 선정·협약<br>- 한반도 비핵화 지위 확보                 |
| 이명박 대통령 | ‘전면적인 협력 동반자관계’→<br>‘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’ | - 한중 FTA 추진 검토 합의<br>- 6자회담 관련 균형적 이행 인식 공유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박근혜 대통령 | ‘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’<br>강화 기대            | - 주요 예상 의제<br>- 경제·산업 등 포괄적 협력 증진 방안<br>-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관한 양국 간 협력방안   |

## 2. 확대되고 있는 양국간 교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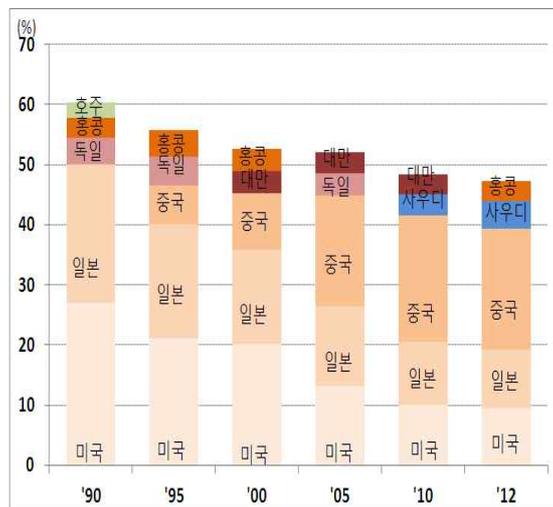
- (양국 경제 교류 지속 확대) 1992년 한·중 수교 이후, 양국 간의 무역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, 투자와 인적 교류도 활발히 진행
- (한중 무역) 對中 무역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 부상
  - 한·중 수교 이후, 양국 간 무역규모는 연평균 19%의 속도로 빠르게 증가
    - 1992~2012년 사이, 양국 간 무역규모는 수교 당시의 64억 달러에서 2012년 2,151억 달러로, 약 34배 증가
    - 동기간, 한국의 수출 및 수입 총액 중 對中 비중은 1992년의 3.5%, 4.6%에서 2012년 24.5%, 15.5%로 대폭 확대
  -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대상국으로 부상
    - 우리나라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2.1%에 불과하였으나 2012년에 20.2%로 확대되면서, 중국이 1990년 7위 교역 대상국에서 2004년부터는 최대 교역 대상국으로 부상
    - 동기간 중국 입장에서 한국은 10위 교역 대상국에서 4위로 부상

< 한국의 對中 교역 추이 >



자료 : 한국무역협회.

< 한국의 상위 5개 무역국 추이 >



자료 : 한국무역협회.

- 한국의 對中 수출 품목은 철강, 소재 중심에서 IT기기 등 첨단 제품 중심으로 전환
  - 1992년 철강관의 수출규모는 4.2억 달러로 對中 수출품목 중 1위를 차지 차지한 반면, 2012년에는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가 가장 많은 약 203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對中 수출규모의 약 15%를 차지
  - 최근에는 석유·화학 관련 제품 수출 비중도 급상승

< 한국의 對中 주요 수출품목 >

(단위 : 억 달러)

| 순위 | 1992년      |     | 2000년    |      | 2012년         |       |
|----|------------|-----|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|
|    | 품목         | 금액  | 품목       | 금액   | 품목            | 금액    |
| 1  | 철강관        | 4.2 | 석유제품     | 16.8 |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| 202.9 |
| 2  | 합성수지       | 3.0 | 합성수지     | 15.8 | 반도체           | 157.8 |
| 3  | 선재봉강 및 철근  | 2.4 | 전자관      | 12.3 | 석유제품          | 110.0 |
| 4  | 가죽         | 1.4 | 철강관      | 11.0 | 합성수지          | 73.8  |
| 5  | 인조섬유       | 1.3 | 가죽       | 7.6  | 전자응용기기        | 45.4  |
| 6  | 인조장 섬유직물   | 1.0 | 컴퓨터      | 7.4  | 석유화학 중간 원료    | 44.0  |
| 7  | 종이제품       | 0.9 | 기타 직물    | 6.0  | 자동차부품         | 42.8  |
| 8  | 섬유 및 화학기계  | 0.8 | 반도체      | 5.8  | 무선통신기기        | 38.1  |
| 9  | 석유제품       | 0.7 | 석유화학섬유원료 | 5.7  | 기초유분          | 36.7  |
| 10 | 기타 석유 화학제품 | 0.7 | 석유화학중간원료 | 5.1  | 철강관           | 32.4  |

자료 : 한국무역협회.

주 : 품목분류는 MTI 3단위 분류 기준임.

- 한국의 對中 수입 품목은 식물성 물질, 섬유, 시멘트 등 원료 중심에서 반도체, IT기기 등 첨단 제품 중심으로 전환
  - 1992년 식물성 물질의 수입 규모가 6.6억 달러로 對中 수입품목 중 1위를 차지, 한편, 2012년에는 반도체의 수입규모가 60.5억 달러로 가장 많음

< 한국의 對中 주요 수입품목 >

(단위 : 억 달러)

| 순위 | 1992년    |     | 2000년    |     | 2012년                  |      |
|----|----------|-----|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   | 품목       | 금액  | 품목       | 금액  | 품목                     | 금액   |
| 1  | 식물성물질    | 6.6 | 의류       | 8.7 | 반도체                    | 60.5 |
| 2  | 원유       | 2.2 | 컴퓨터      | 8.2 | 컴퓨터                    | 56.1 |
| 3  | 인조단 섬유직물 | 2.2 | 석탄       | 7.2 | 철강관                    | 45.6 |
| 4  | 시멘트      | 2.1 | 식물성물질    | 6.9 |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            | 37.3 |
| 5  | 석탄       | 2.1 | 반도체      | 6.3 | 정전(static electric) 기기 | 34.4 |
| 6  | 견직물      | 1.8 | 정밀화학원료   | 3.9 | 의류                     | 31.0 |
| 7  | 곡식류      | 1.4 | 합금철선철및고철 | 3.8 | 정밀화학원료                 | 28.8 |
| 8  | 정밀화학원료   | 1.1 | 음향기기     | 3.5 | 무선통신기기                 | 28.4 |
| 9  | 면직물      | 1.0 | 석유제품     | 3.2 | 기구부품                   | 19.8 |
| 10 | 기타농산물    | 1.0 | 어류       | 3.1 | 전선                     | 19.6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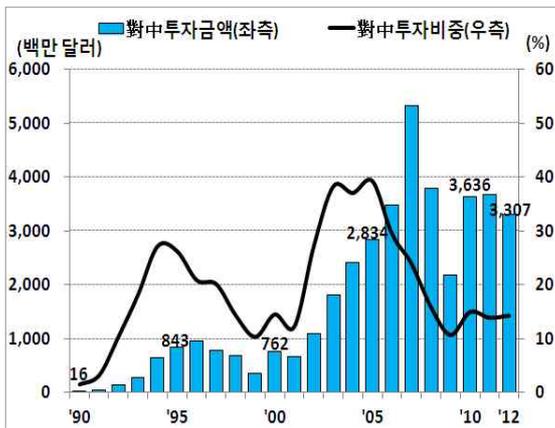
자료 : 한국무역협회.

주 : 품목분류는 MTI 3단위 분류 기준임.

○ (한·중 직접투자) 중국은 한국의 네번째로 큰 직접투자 대상국, 한국은 중국의 다섯번째로 큰 직접투자 대상국으로 부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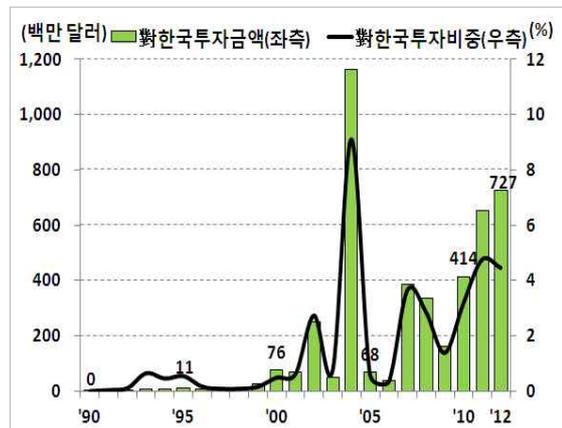
- 양국 간 상호 직접투자 규모가 최근 들어 증가세로 회복
  - 한국의 對中 직접투자는 1992년의 1억 달러에서 2012년에는 33억 달러로, 연평균 17%의 속도로 증가하여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투자 대상국으로 부상
  - 중국의 對한국 직접투자도 1992년 10만 달러에서 2012년에는 약 7.3억 달러로 급속히 확대

< 한국의 對中 직접투자 추이 >



자료 : 한국 수출입은행.

< 중국의 對한국 직접투자 추이 >



자료 : 한국 산업통상자원부.

○ (인적교류) 양국 간 인적교류도 한·중 수교 이후 약 80배 증가

- 양국간 인적교류 규모는 1992년 9만 명에서 2012년 691만 명으로 급속히 증가
- 2012년 기준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수는 407만 명,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수는 284만 명으로 집계됨

< 한·중 간 상대국 입국자수 추이 >

(단위 : 만 명)

| 연도      | '92 | '95 | '98 | '01 | '04 | '07 | '10 | '12 |
|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한국 → 중국 | 0   | 53  | 63  | 168 | 284 | 478 | 408 | 407 |
| 중국 → 한국 | 9   | 18  | 21  | 48  | 63  | 107 | 188 | 284 |
| 계       | 9   | 71  | 84  | 216 | 347 | 585 | 595 | 691 |

자료 : 한국관광공사, 中國國家旅游局.

주 : 입국자수에는 관광, 비즈니스, 친척방문, 유학 등 목적으로 한 입국자수 포함.

### 3. 한·중 경제 교류 현안

#### ① 한·중 FTA

○ 한·중 정부간 FTA 협상은 지난 2012년 양국간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본격화되고 있으나, 개방 분야에 대한 입장 차이가 걸림돌이 되고 있음

- 한·중 FTA 논의는 8년 만에 정부 간 협상으로 발전
  - 2004년 9월 한·중간 민간 공동연구 개시 추진 합의 후 약 3년만인 2007년 3월부터 한·중간 FTA 산·관·학 공동연구 개시
  - 이어서 2012년 1월 9일 한·중 간 정상회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 후, 2012년 5월부터 2013년 4월까지 5차 협상이 진행
- 양국 간 경제 협력은 기존 對中 부품·소재 수출 등 수직적 분업관계에서 상호 보완적인 수평적 분업관계 체제로 전환이 필요함
  - 2012년 현재, 한국의 전체 對中 수출 대비 對中 부품·소재 수출 비중은 약 64%로 지난 1995년 42%보다 1.5배 증가, 對中 가공무역 의존도 지속
  - 하지만, 최근 중국의 친환경 경제 조성으로 가공무역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있어, 대중 교역의 전환점 도래
- 한·중 FTA는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필요
  - 포괄적이고도 실질적인 자유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하나 국내 농수산업과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동시 모색
  - 또, 상품·투자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포괄적 분야의 의제화도 고려

< 한국의 對中 부품·소재 수출 추이 >

(단위 : 억 달러)

| 구분            | 1995 | 2000 | 2005 | 2012  |
|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|
| 전체 對中 수출(A)   | 91   | 185  | 619  | 1,343 |
| 對中 부품소재 수출(B) | 38   | 101  | 376  | 865   |
| B/A(%)        | 41.7 | 54.6 | 60.7 | 64.4  |

자료 : 한국무역협회자료를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재분석.

② 한·중 금융 협력

○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금융시장 불안정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위안화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한·중간 금융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 필요

- 한·중 양국 간 은행, 보험, 증권 등 금융기관의 진출이 최근 증가
  - 지난 2006년 중국의 외국계자본에 대한 금융시장 개방이후 한·중 간 은행, 보험, 증권 등 금융기관 진출이 확대
- 최근에는 한·중간 통화스왑 추진 등 양국 간 통화거래도 확대
  - 한·중 간 통화스왑 규모는 2008년 1,800억 위안으로 시작, 2011년 말 3,600억 위안(64조)으로 2배 확대하며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무역결제에 사용할 준비 중
  - 더욱이 2012년 현재, 중국계 자금의 국내 유입도 빠르게 증가
- 다만 금융부문에서 한·중간 실물부문 교류는 증가하나, 제도적 장벽이 여전히 높아 교류확대에 제약으로 작용
  - 한국의 금융기관이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QFII 자격 등을 통해 가능한 실정
  - 중국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QDII 자격 등 행정 허가가 필요
  - 또, 중장기적으로 자국통화를 활용한 결제제도의 도입 및 환율 협력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도 필요
  - 더욱이 원화와 위안화가 양국간 결제통화로 활용하고 일정 규모 내에서 상호 유통하다가 점차 규모를 확대한다면 지역적 국제화를 이루어 통화 리스크가 감소할 가능성이 큼

< 한·중 금융기관 상호 진출 현황 >

| 구분 | 한국에서 중국으로 | 중국에서 한국으로 |
|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은행 | 30여개 지점   | 5개 지점     |
| 보험 | 4개 업체     | -         |
| 증권 | 10개 사무소   | 2개 대표사무소  |

자료 : 내·외신 자료 종합.

< 중국계 자금의 국내 유입 현황 >



자료 : 금융감독원.  
주 : 상장채권, 상장주식 보유규모 합.

③ 한·중 최첨단 과학 혁신 기술 교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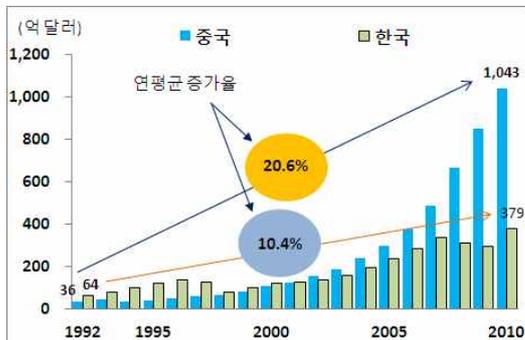
○ 최근 중국은 과학기술 기초 역량 강화 등 고부가 최첨단 산업 구조재편이 가속되는 만큼, 관련 분야에 대한 한·중 간 교류 확대 필요

- 중국은 그동안 R&D 투자 확대뿐 아니라, 특허출원 및 과학기술 논문 수 급증 등 과학기술 발전의 기초 역량 강화

· 2012년 현재, 한국과 중국의 R&D 투자 규모는 각각 1,043억 달러, 380억 달러로 중국이 한국의 약 3배 수준에 이룸

· 연구원 1인당 특허 출원 건수 및 논문 편수도 중국이 한국을 크게 압도

< 한·중 R&D 투자 비중 >



자료 : OECD, 中國科技統計.

< 연구원 1인당 특허출원 건수 및 논문편수 >  
(단위 : 천 건, 천 편)

| 시기   | 특허    |       | 논문    |      |
|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|
|      | 중국    | 한국    | 중국    | 한국   |
| 1995 | 18.7  | 78.5  | 13.1  | 5.9  |
| 2000 | 51.9  | 102.0 | 30.5  | 13.5 |
| 2005 | 173.3 | 160.9 | 68.2  | 27.8 |
| 2010 | 391.2 | 170.1 | 143.8 | 39.8 |

자료 : 일본과학기술지표(2012), 中國科技統計 등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.

- 첨단 과학기술분야에서 한국이 중국보다 우위와 열위 분야를 분류, 전략적 기술 교류 추진이 필요

· 전자정보통신, 바이오 등 한국의 우위 분야와 우주·항공 등 열위 분야를 전략적 차원에서 기술 교류 확대 추진

< 7대 주요 중점과학기술의 분야별 한·중 기술 격차 비교 > (단위 : 년)

| 구분       | 한국   |      |                 | 중국   |      |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| 2010 | 2008 | 격차축소(2008-2010) | 2010 | 2008 | 격차축소(2008-2010) |
| 전자·정보·통신 | 3.0  | 3.8  | 0.8             | 5.4  | 7.1  | 1.7             |
| 의료       | 6.4  | 8.1  | 1.7             | 8.9  | 10.5 | 1.6             |
| 바이오      | 5.6  | 7.3  | 1.7             | 7.8  | 9.8  | 2.0             |
| 기계·제조·공정 | 4.8  | 6.1  | 1.3             | 8.1  | 9.5  | 1.4             |
| 에너지·자원   | 5.8  | 6.6  | 0.8             | 8.2  | 9.1  | 0.9             |
| 우주·항공·해양 | 7.1  | 7.4  | 0.3             | 7.1  | 8.4  | 1.3             |
| 나노·소재    | 5.7  | 6.4  | 0.7             | 8.1  | 8.5  | 0.4             |

자료 : 국가 R&D 기술산업정보서비스를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.  
주 : 상기 수치는 최고 기술보유국과의 기술격차를 년 단위로 산출한 값임.

④ 한·중 문화 및 인적 교류

○ 중국은 한류를 중심으로 한 국내 문화 수출 최대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양국 간의 인적 교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, 관련 협력 증진을 위해 애로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야 함

- 양국 간 문화 교류 증가 속 인적 교류도 활발히 진행

- 한류 등 對中 콘텐츠 수출은 2009년 5억 8,100만 달러에서 2011년 11억 1,900 달러로 약 1.9배 증가
- 한편, 국내 중국인 입국자 수는 2000년 44만 명에서 2012년 284만 명으로 약 6.5배 증가, 중국내 한국인 입국자 수도 동기간에 134만 명에서 407만 명으로 약 3배 증가
-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제적 중국인 학생 수는 2005년에 9,000명에서 2012년 4.2만 명으로 4.7배 증가
- 중국내 한국인 유학생은 동기간에 5.4만 명에서 6.3만 명으로 1.2배 증가

- 콘텐츠 산업은 양국 간의 콘텐츠 시장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·중간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치 등이 미흡한 실정

- 또, 중국 내 한국 유학생의 현지 취업, 비자 절차 간소화, 문화적 이질감 해소 등 양국 간 인적교류에 있어서도 걸림돌이 존재

< 對中 콘텐츠 수출입 추이 >

(백 만달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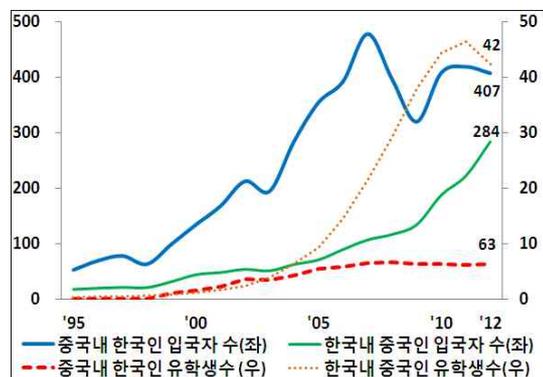


자료 : 콘텐츠 진흥원.  
주 : 콘텐츠 산업은 출판, 만화, 음악, 게임, 영화, 애니메이션, 방송, 캐릭터 등으로 구성.

< 한국과 중국 인적교류 현황 >

(만 명)

(천 명)



자료 : 한국관광공사 DB, CEIC, 교육통계연보, 中國高等教育學會.  
주 : 고등교육기관 제적 중국인 수 기준(동포제외).

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관련 양국 간 협력

○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한 구체적인 양국 간 협력 방안과 더불어 중국의 역할에 대한 인식 공유가 시급

-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란 ‘안보와 교류 협력’의 균형 있는 추진을 목표
  -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신뢰프로세스가 가동될 수 있는 국제적 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동북아 차원의 신뢰구축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
- 한반도의 비핵화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 및 번영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, 대화를 통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합의
- 또,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한중미, 남북중 등 다자대화체를 활용하는 한반도 신뢰 구축의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큰 틀의 인식 공유
  - 북한이 6자회담의 틀로 돌아와 비핵화 논의를 전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인식 공유
- 한편, 한국, 중국, 러시아, 몽골 등 동북아 4개국 경제 협의체인 광역두만강개발계획(GTI)을 동북아개발은행으로 전환하고 향후 북한을 회원국으로 끌어들이는 방안에 대한 논의 고려
- 한·중 FTA와 한·중·일 FTA를 통해 개성공단·황금평 등 북한특구지역을 역외가공지역(outward processing zone)으로 지정 협의 고려
  - 이를 통해 북한을 국제경제질서에 편입시켜 개방으로 유도하고 남북관계를 활성화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 기대

#### 4. 시사점

- 첫째, 한·중 FTA 협상은 단순히 민감산업 협상에만 집착하기보다는 향후 미래 산업구조 재편에 대한 중·장기적 안목으로 산업 분야별 단계별 협상 제시
  - 한·중 FTA 논의는 거의 10년이 되어가나, 양국 간 민감산업에 대한 입장차로 실질적인 협상으로 발전이 지연되는 상황
  - 한·중 FTA 효과는 단기적 교역증대, 경제성장 촉진 등이 기대되나, 농수산물 등 산업이 위협을 받을 것으로 예상
  - 중국과 FTA 협상은 대만, 홍콩 등 중화권 지역과 뉴질랜드 등 선진국 등으로 분류해 우리에게 유리한 협상 단계를 모색해 단계별 협상 제시 필요
- 둘째, 향후 국제금융시장에서 중국의 위상 강화에 맞춰, 한·중간 통화 스왑 확대, 위안화 무역결제 확대 등을 통해 중국 금융시장 개방 기회 활용
  - 향후 중국 금융시장의 대외 개방이 확대될 경우를 대비, 금융부문 교류 확대에 대한 한·중 FTA 협상 등을 활용해 한국이 중국의 역외 금융 및 무역 허브로 부상할 기회 활용
  - 또, 향후 중국의 위안화국제화가 빠르게 진전될 경우를 대비, 통화 스왑 확대, 위안화 무역결제 확대 등을 통해 중국 금융시장 개방에 대한 사전 대비도 필요
- 셋째, 차세대 유망분야에 대한 집중 육성을 통한 신성장 동력화로 중국의 기술 추격에 대응한 활용방안 모색
  - 우주, 해양 등 거대과학기술분야에 대한 경쟁력은 이미 중국이 한국을 추월한 상태이므로 첨단과학 기술 분야의 상호 호혜적 협력관계 구축하고, 우주·항공·해양 등 주요 과학기술 분야별 협력과 지원도 추진
  - 양국 간의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산학연 협동연구, 우수 인재 교류, 협동 세미나 등을 추진하여 교류 확대

- 넷째, 양국간 문화 콘텐츠 산업분야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, 인적·문화적 교류도 대폭 확대 및 강화 필요
  - 중국 내 한류, K-POP 등 한국의 주력 문화 콘텐츠 분야의 지속성을 위해 규제 장벽 완화뿐 아니라, 그 밖의 콘텐츠 산업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 장치 마련 시급
  - 한·중 양국 정부 차원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유학생 관리지원, 학술교류 및 교환 프로그램 지원체제 구축 등의 필요
  
- 다섯째,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한 지지와 협력 도출
  - 중국도 한반도 비핵화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원칙을 가진 만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실현을 위한 한중간 협력 체제 공고화 합의 필요
    -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론 강조와 한미중 전략대화 등 북핵 현안 해결을 위한 공조 체제 강화 협의
  - 동북아개발은행, 한·중 FTA 및 한·중·일 FTA를 통한 개성공단·황금평 등 북한특구지역의 역외가공지역(OPZ) 지정 등을 통해 북한의 동북아 지역협력 참여 유도

한재진 연구위원 (hzz72@hri.co.kr, 2072-6225)  
천용찬 연구원(junius73@hri.co.kr, 2072-6274) 외